

#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성과 눈에 띄네?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발간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특수학교 추가 설립 · 학교 특수학급 증설 · 특수교사 인력 증가 등  
0~5세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 지원 사업 시행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에서 특수교육 기관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 및 인력 증원을 통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 그간의 성과를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10곳으로 특수학급을 4개교 더 설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북지역에 3

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1개의 특수학교는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다.

(가칭)동부산악권 특수학교는 2026년 3월,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와 군산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는 2027년 3월 각각 개교 예정이다. 김제·부안 서부권 특수학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학교 3곳을 포함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증설했다. 특수학급 수를 살펴보면 2023년 505학급

에서 2024년 558학급으로 10.5% 증설된 것이다.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역시 늘었다.

특수교사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34명(6.8)이, 지원인력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23.8% 증가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원치료비 또한 1인당 월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핵심과제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포함해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10~14일 5일 간 도내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970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생각'이란 질문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가장 변화가 컸던 분야로 특수교육기관 확충(26.5%)을, 또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특수교육기관 확충(22.4%)으로 나타났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한 병설유치원에서 여름방학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병설유치원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친구들과 함께 놀며 성장해요'

금마초 병설유치원 등, 한울타리유치원 시범 통해  
여름방학 방과후 과정 운영... 놀이 활동 다채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이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금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여름방학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울타리유치원은 중심 유치원 1곳과 협력 유치원 2~3곳이 체험학습, 교육활동, 학부모행사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유치원 충원을 하려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면서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유아교육 운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산초·미륵초·금마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 유치원으로 선정, 1학기 동안 학부모와 유아들이 함께하는 가족만들기, 그림책놀이, 생존수영

과 연계한 물놀이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방과후 과정에도 금마초와 여산초, 미륵초 병설유치원 유아 20여 명이 함께 온종일 놀이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요리 체험·생존수영·에어바운스 놀이 등 다양한 특별한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한울타리유치원 운영은 유아들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부모와 유아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임대섭 유초특수교육과장은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통해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내 소규모 유치원 비율이 높은 만큼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고등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8월 9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뉴저지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는 고교생들이 출발하기 전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도내 고교생 100명, 美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여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에서 진행

'연결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자' 슬로건... 모듈별 프로젝트 방식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 학생들이 30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8월 9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뉴저지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는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 교수진과 뉴저지 고등학생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연결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자'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이슈를 놓고 팀워크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모듈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존 해외 문화 체험과 차별화를 뒀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지속 가능한 가치) △글로벌 기술 개발(비판적 사고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글로벌 문화 탐구 △글로벌 사회 발전 등을 주제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탐구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앞서 프로그램 주제 관련 사전 탐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

지 3차례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학생들의 모듈별 사전 프로젝트 조사·발표 및 토론 과정도 운영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린스턴 대학교 탐방 △유엔 본부 견학 △주요인한 국제대표 브리핑 △뉴욕 현대미술관 및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등도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전북외고 안우현 학생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실제 대학 교수진에게 받는 글로벌 교육을 경험하면서 좁게만 살았던 넓은 지구를 한층 더 다양하게 경험하며, 나만의 삶의 지표 발견하는 계기로 삼

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전주 영성고 김효규 학생은 "캠프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면서 "캠프를 통해 세계적 도시 뉴욕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캠프를 통해 전북 고등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부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수소산업 육성정책과 지역 기업의 수요에 특화된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전국에서 10개 대학이 선정, 도내에선 전북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년 간 4억9,500만 원을 지원받아 일진하이솔루스(주), 비나텍(주), (주)아레스, (주)비나에프씨엠, 두산퓨얼셀(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특성화 인재양성에 나선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해 온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유동진 교수(생명공학과·에너지 저장변환공학과)는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연료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수소분야 글로벌 수소연료전지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권역 하이브리드 강의로 대학 간 벽 허문다

전북대, 도내 대학 공유 하이브리드 강의 시작



전북대학교가 올 2학기부터 전북권역 대학이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제약이 많았다. 이에 학사운영 실무자

간 지속적인 협업과 플레그십대학의 역할을 지임한 전북대 이동현 교무처장의 끈은 의지로 제약사항 등을 보완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학기부터 개설되는 과목은 전북대와 군산대가 협업하는 팀티칭 수업인 '과학기술과 공공성' 과, 전북대와 우석대의 팀티칭 과목인 '테크니컬 라이팅' 과목 등이다. 각각 군산대 학생과 우석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달 말까지 소속 단과대학에 참여 신청을 하면, 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해준다. 수강 학생들은 개설된 교과목이 속한 학교의 LMS를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전북권역 하이브리드 강의가 새롭게 시행되는 출발선에 있는 만큼 정규학기 종료 후 성과 보고회를 통해 우수 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교원의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이같은 지역 공유형 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교무처장은 "이번 전북권역 하이브리드 강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타 지역으로 이 탈하는 학생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권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특정 분야의 강의 개설이 어려운 대학들에게 전북대의 순수 기초학문을 제공하고, 또 대학 간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교육청,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

청렴협약서 작성 등 의지 다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2층 강당에서 기술직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시설공사 관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 2회 교육시설공사 관계자와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사관리 분야에 대한 부패 고리 차단을 위한 청렴 이행 및 안전 실현 공동 협약을 낭독했다.

이어 시공자 예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 상호 간에 이해와 견실한 시달물을 완성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청렴 간담회를 통해 시설공사 관련 부조리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중대재해 및 인명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연극 체험으로 자신감 · 창의력 · 표현력 향상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31일 이틀간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중 희망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연극 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창의력, 표현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통과 교감을 위한 연극놀이 △역할극을 통한 과정 드라마 체험 △몸짓임과 정지 동작을 활용한 역할극 △상상과 즉흥 스토리텔링 △즉흥극 만들기 및 표현하기 등이 있다.

강사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전북교육연극연구회 소속 교사들과, 전북교사극단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스토리 드라마'와 '드라마 게임'으로 연극 만들기를 흥미롭게 접하며 극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서기 문체재단강과장은 "연극을 교육의 매개체로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연극놀이에 참여해 자기 주도성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기를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